

「AI·데이터 활용 소상공인 신용평가  
개선 현장 간담회」

# 모 두 발 언

2025. 7. 24.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권 대 영

## I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권대영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먼 곳 까지 함께해주신  
소상공인 여러분과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관계기관 여러분, 자리를 마련해주신 카카오뱅크 윤호영  
대표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자리는 대통령의 충청권 타운홀 미팅(7.4일) 이후**3**  
**번째 현장간담회**로, ※ 1차 7.8일, 2차 7.17일

지난 현장간담회(7.17일)에서 제기된  
건의중 소상공인 신용평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마련하였습니다.

\* "28살에 취업을 해서 3개월 다니니까 2,000만원의 신용대출이 나오더라구요.  
저희 어머니는 30년 장사하고 성실하게 상환을 해도 대출이 안 나와서 사채를  
썼습니다." - 창특 노승욱 대표(금일 간담회 참석)

## II 소상공인 금융정책 방향

지금 정부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들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유망한 업종의 창업을 돕고,  
성장성 있고 지속가능한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확한 신용평가가 선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표자 개인의 신용이나, 담보·보증, 재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전통적 방식의 자금공급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AI, 데이터 결합 같은 디지털 기술을 총동원하여  
“완전히 새로운 해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사업자 개인의 금융정보 외에도  
사업체로서 그동안 쌓아온 평판이나 업력 같은 비정형 정보,  
AI기술을 활용해 분석한 미래 성장성 예측과 같은  
다양한 긍정적 정보들이  
소상공인·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에 체계적으로  
반영되도록 제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융이력이 부족한 청년 소상공인들이  
아이디어와 기술력, 미래 성장성만으로도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폭넓게 모으고 유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드리려고 하는  
개인사업자 전용 마이데이터 서비스인  
“My Business Data(마이 비즈니스 데이터)”와  
“소상공인·자영업자 특화 신용평가시스템(SCB)”가  
새로운 해법의 첫 단추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이 비즈니스 데이터는  
신용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차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소상공인 여러분의 창업부터  
어려워지실 경우에는 폐업후 재기지원까지  
순단계에 걸쳐 원스톱 금융비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하겠습니다.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신용정보원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통합정보센터(SDB)를 세우고,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시스템(SCB\*)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 Small-business & Self-ownership Credit Bureau / Small-business & self-ownership Data Base

이 시스템은 AI, 데이터 결합과 같은  
디지털 기술을 총동원 해서  
다양한 비금융·비정형 정보를 집중·관리·분석하여  
성장성과 잠재력을 갖춘 유망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소상공인분들이  
은행에서 대출받으시는 것 뿐만 아니라 (간접금융)  
자본시장 투자자로부터 직접 자금을 조달하는 (직접금융)  
방법도 선택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여러분이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으로, 소위 STO라고 부르는  
**토큰증권\***의 도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블록체인과 스마트 계약을 활용하여 주식채권과 같은 증권을 토큰형식으로 발행하는 것

토큰증권을 활용하면,  
사업의 수익을 배분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증권\*(투자계약증권)의 발행이 쉬워져,  
다양한 소상공인의 사업자금 모집을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예] 음식점·베이커리 등의 2호점 개점 사업자금 조달을 위한 증권  
(매월 또는 매분기 2호점 사업이익을 토큰증권 투자자들에게 배분)

이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린 소상공인 통합DB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을 지원하는 기초정보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2020년 데이터 3법 개정을 통해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는 데이터를 안전하게 공유하고  
연결하는 기반을 다지는 시기였습니다.

이제는 데이터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며,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는 데이터 경제의 이익을  
실현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논의할 마이 비즈니스 데이터, 소상공인·자영업자  
특화 신용평가시스템, 토큰증권 등이  
그 새로운 단계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앞으로도 금융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활용이  
소상공인 여러분께는 문제해결의 기회를 드리고,  
우리 경제에는 새로운 성장의 동력이 되도록  
현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정책을 설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많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회의 종료시 마무리 발언**

'14년 기술금융 도입 당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죽어도 기술금융 살아도 기술금융"이라는 "죽기살기" 마음으로 정책을 추진하였음.

금번에는 소상공인의 신용이 **통**하면 우리경제 **방방곡곡**에 활력이 **통**한다는 마음으로, "**신통방통**"한 소상공인 신용평가모형(SCB) 개발을 추진하겠음.